

“2호선 2단계 개통 1년 지연, 상황 공개하고 사과해야”

●광주시의회 도시철도건설본부행정사무감사

박수기 시의원 “사업비 증액 없는 유찰은 예견된 참사” “서울시 적극행정 참고, 총사업비 증액 적극 협의해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 말에서 2030년 말로 1년 지연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일련의 상황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사진)은 7일 도시철도건설본

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의 핵심 구간인 7·10공구 입찰이 무산되면서 준공 기한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사업비 증액 없는 유찰은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



공구 구간에 대해 지난 8월30일 5번째 공식 유찰을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시공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에서는 애초에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저가 발주가 유찰의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7·10공구의 경우 교

통량 계산 오류까지 겹쳐 공사비가 크게 상회하는 데다, 지하공사 특성 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증액 없이는 어떤 업체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예견된 상황으로 광주시의 단일한 대처가 결국 또 다시 ‘개통 지연’이라는 결과를 시민에 보고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적극행정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 논의를 서둘러

유사 사업 입찰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며 “광주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이제라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호선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진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공개하고 또 다시 지연되는 공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대 주변 구간인 7공구의 경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증액을 통해 기존 개착 방식(복공판 설치)이 아닌 터널 방식(복공판 없이 정거장 기준 땅을 파

낸 뒤 공사)으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 공사 방식을 변경하면 약 200~300억원의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본촌산단을 통과하는 10공구의 경우 지하에 하수박스가 있어 우회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공구에 대한 업체 선정이 늦어진 데다, 사업비 논의 등 납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개통 시기는 당초 2029년 말에서 2030년 말로 늦어질 전망이다. /박성각 기자

도-6개 스포츠협회 전남사랑에서포터즈 협약

전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한산악연맹 등 6개 스포츠-레저 관련 협회와 관광체육국, 기업도시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스포츠 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손중호 대한산악연맹회장, 정창훈 대한수영연맹회장,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장, 구자록 대한철인3종협회부회장, 임언석 대한자전거경주협회사무총장 등 스포츠 관련 협회와 송진호 전남도 체육회장이 참석했다.



7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6개 협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등 고향사랑 실천과 도내 각종 스포츠-레저 대회 유치 및 홍보 협력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또한 6개 협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

즈 5만명 가입을 약정해 서포터즈 100만 조기 달성을 통한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에 도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스포츠 인프라와 건강한 음식, 온화한 인심까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데 최적의 지역”이라며 “전남에서 많은 스포츠 대회가

열려 전남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서포터즈에 가입해 더 많은 분들이 전남과 연결고리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COP33 유치 추진 지지부진”

이광일 도의원, 유치위 구성·지원 조례 제정 등 촉구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전남도의 추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최근 전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COP33 유치 노력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 COP33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전남도의 유치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며 “조속히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체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COP33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농수산물·공산품, 유럽 진출 가능성 확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수출상담회 1천35만달러 수출 협약 난방기·화장품·해조류·유자차 등 15개사 총 205건 상담

전남산 농수산물·공산품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전남도와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7일 “최근 5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수출 유망기업 15개사를 파견, 총

1천35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49개국에서 3천여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전시·수출상담회,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행사 등 다양

한 비즈니스 협력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전시·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농수산물 8개사와 공산품 7개사가 참여해 205건의 상담과 1천35만달러의 수출협약을 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쥘온돌라이프 난방기 제품 500만달러 ▲쥘지너스인터네셔널 클렌징밤 제품 150만달러 ▲농업회사법인(쥘꿀든) 유자차 100만달러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유기

질비료 100만달러 ▲쥘쥘비드림 재난안전장비 100만달러 ▲쥘바다명가 해조류 50만달러 ▲다산명가쥘 전통식품 30만달러 등 수출협약을 했다. 이 밖에도 쥘아리움이 오징어 스낵, 해산이 조미김, 쥘해미원이 전복, 쥘동서산업이 컬러우드칩, 쥘신성메이저글리브가 산업용 안전장갑, 해송식품쥘가 도시락김, 디엑스엠이 염모제 등을 출품해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5년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부활해야”

이재태 도의원 “교육 경쟁력 확보·학습 선택권 보장”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은 7일 “전남지역 학습 선택권 확대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산어촌 학령인구 감소와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학군제 부활이 전남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로는 학부모·학생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 광주시와 인접한 지역 만이라도 공동학군제 적용을 통해 학습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번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